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

PRESERVING OUR HERITAGE FOR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

PRESERVING OUR HERITAGE FOR FUTURE GENERATIONS

2017. 10. 21. - 11. 18. 매주 토요일 13:00 / 16:00 10. 28.(토) 제외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목차

Contents

Intro	영화 상영표 Screening Schedule	4
	서울역사박물관 Seoul Museum of History	6
	유럽연합국가문화원 EUNIC_European Union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e	8
	유럽연합대표부 EU Deleg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10
Films	10/21 독일 GERMANY 미래의 도시-실험의 장 아시아 The City of Tomorrow-Experimental Ground Asia	12
	프랑스 FRANCE 내일 Demain/Tomorrow	16
	11/4 스페인 SPAIN 공사 중 EN CONSTRUCCIÓN / WORK IN PROGRESS	20
	체코 CZECH 프라하 도시계획 The Plan	24
	11/11 스웨덴 SWEDEN 스톡홀름씨의 좋은날 Good Things Await	28
	이탈리아 ITALY 갓 세이브 더 그린 God Save the Green	32
	더 플라잉 가드너스 The Flying Gardeners	
	11/18 영국 UK 무빙 이미지 A Moving Image	36
	헝가리 HUNGARY 유리 채색 화가 - 믹셔 로트의 예술 The Glass Painter - The Art of Miksa Róth	40
	서울역사박물관 관람안내 및 참여방법	44

DATE	TIME	TITLE	PRODUCTION	R/T
10. 21.	13:00	미래의 도시-실험의 장 아시아 The City of Tomorrow-Experimental Ground Asia (Talk) 배형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Hyungmin Pai, Director of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17	2014 독일/GERMANY	104min.
	16:00	내일 Demain/Tomorrow (Talk) 이은진 공익문화콘텐츠기획사 플랫폼C 대표, 기후변화콘텐츠랩 소장 Eunjin Lee, CEO of Platform C & Head of Climate Change Contents Lab	2015 프랑스/FRANCE	118min.
11. 4.	13:00	공사 중 EN CONSTRUCCIÓN / WORK IN PROGRESS (Talk) 코코 크가트 고려대학교 교수 Coco Cugat,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2001 스페인 /SPAIN	125min.
	16:00	프라하 도시계획 The Plan (Talk) 미하엘라 리 체코문화원장 Michaela Lee, Director of the Czech Centre Seoul	2014 체코/CZECH	90min.

DATE	TIME	TITLE	PRODUCTION	R/T
11. 11.	13:00	스톡홀름씨의 좋은날 Good Things Await (Talk) 맹수진 프로그래머 Soo-Jin Mang, Programmer	2014 덴마크 /DENMARK	95min.
	16:00	갓 세이브 더 그린 God Save the Green 더 플라잉 가드너스 The Flying Gardeners (Talk) 김성욱 시네마테크 서울 프로그램 디렉터 Seong Uk Kim, Program Director of Seoul Art Cinema	2012 2015 이탈리아 /ITALY	75min. 9min.
11. 18.	13:00	무빙 이미지 A Moving Image (Talk) 김형우 (주)PEOPLE 대표 Benny Kim, CEO of PEOPLE	2016 영국/UK	74min.
	16:00	유리 채색 화가 – 믹서 로트의 예술 The Glass Painter – The Art of Miksa Róth (Talk) 비아트릭스 멕시 ELTE 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Beatrix Mecsi, Professor of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at ELTE University	2015 헝가리/HUNGARY	70min.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장소와 역사와 기억을 저장하고 전시하는 도시역사박물관입니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은 박물관음악회, 도시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매년 유럽연합국가문화원(EUNIC: European Union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e)과 함께 유럽의 도시와 문화를 주제로 유닉(EUNIC)영화제를 개최해왔습니다. 2017년 유닉영화제의 주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도전과 노력, 그리고 도시문명과 환경변화를 담은 8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됩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야주개홀에서 유럽의 도시풍경과 도시기억을 아름다운 장면과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도시의 지속과 변동의 과정 속에서도

지켜야 할 유산은 무엇인가, 어떻게 다음 세대와 공유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화제가 개최되기까지 힘써주신 유럽연합국가문화원 대표이자 주한체코문화원장이신 미하엘라 리 원장님과 유럽 7개국(독일,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이태리, 영국, 헝가리) 대사관과 문화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영화제가 어느 해보다 풍성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미하엘 라이터리 주한유럽연합대사님과 유럽연합대표부(EU Delegation)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

Seoul Museum of History

The Seoul Museum of History is a museum which embodies place, history and memories of Seoul. The Museum performs a role as a cultural complex for citizens by holding various cultural events such as musical performances, film festivals dedicated to cities in the world, etc.

Since 2015, with the European Union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e(EUNIC Korea), the Seoul Museum of History hosts EUNIC Film Festival showcasing European cities and their culture. The theme of this year EUNIC Film Festival is ‘Preserving Our Heritage for Future Generations’. During this festival, the carefully selected 8 documentary films displaying challenges and endeavor for creating sustainable cities, as well as city civilization and environmental change will be screened. It is a great pleasure to share cityscape and urban memories of Europe through beautiful scenes and perspectives. I hope it will be the opportunity for a time to think about what heritage should be

preserved and how to share it with the future generations in the process of urban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I wish to thank Michaela Lee, the director of the Czech Centre Seoul who also acts as the president of EUNIC Korea, the Embassies and Cultural Institutes (Germany, France, Spain, Denmark, Italy, UK, Hungary) which are participating in 2017 EUNIC Film Festival.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Dr Michael Reiterer, the ambassador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EU Deleg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supporting the festival.

—
In-ho Song
Director of the Seoul Museum of History

주한유럽연합국가문화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표부의 지원으로 유럽문화원연합(EUNIC)과 서울역사박물관이 함께 제3회 유럽문화원연합(EUNIC)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유럽문화원연합(European Union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e)는 2006년 설립된, 각 대륙에 100개 이상의 클러스터를 지닌 유럽 연합 회원국의 문화원 연합입니다. 유럽문화원연합은 유럽의 가치를 홍보하고, EU 회원국 및 비 회원국 간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이해에 기여하며 유럽국 문화원간의 협력을 통해 36개 회원국간 강한 파트너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유럽문화원연합은 문화의 역할을 넓히고, 문화간 대화, 교류 그리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문화원연합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유럽의 문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다른 유럽의 기관들의 파트너입니다.

유럽문화원연합영화제는 2015년 세계2차대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일회성 행사로 시작하였습니다. 크게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매년 한국 관객들에게 다양한 국가들 뿐만아니라 한국의 대중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공감하고 따라서

토론과 이슈들이 제시될 수 있는 현실의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매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 유럽문화원연합영화제 "전후 유럽 도시와 삶"은 유럽의 도시들의 전후 재건과 1945년 직후의 사회를 다뤘습니다. 작년의 영화제에서는 "유럽 도시 이민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난민사태에 대해 성찰하였습니다.

올해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일부 개최되고 있는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기념하며, 유럽문화원연합 영화제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어바니즘, 환경, 지속가능성,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주제에 집중합니다. 영화제에서는 체코공화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의 7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와 1편의 장편영화를 상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는 우리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았고, 이후 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가 남기고 갈 것에 책임이 있으며, 우리가 현재에 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문화원연합영화제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와 공간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한국의 유럽문화원연합을 대표하여, 이 행사를 주최하고 공동기획한 서울역사박물관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3회 유럽문화원연합(EUNIC)영화제가 한국 관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다양한 토론의 장을 열어 문화간 대화와 이해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미하엘라 리
유럽연합국가문화원 대표
주한체코문화원장

EUNIC Korea European Union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e

It is my great pleasure to open the 3rd EUNIC Film Festival organized by EUNIC Korea and the Seoul Museum of History with a kind support of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EUNIC – European Union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e established in 2006 is a network of National Culture Institutes of the European Union's member states with in more than 100 clusters on all continents. EUNIC promotes European values and contributes to cultural diversity and mutual understanding across cultures inside and outside of the EU building stronger partnership among its 36 members through collaboration of the European cultural institutes.

EUNIC's aim is to expand the role of culture and to strengthen cultural dialogue, exchange and sustainable cooperation worldwide. EUNIC have become a partner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other European institutions in defining and implementing European cultural policy.

The EUNIC Film Festival started in 2015 as an one-time event being held on the occas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World War II. Due to its great success the organizers decided to continue with the project every year offering the Korean audience actual topics, which can be shared by various European countries as well as

Korean public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and thus enable to open a discussion on present issues. The first EUNIC Film Festival "Life and Cities in Postwar Europe" deal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postwar European Cities and their society following immediately the year 1945. Last year the festival having the title "Migrants in European Cities" reflected the migrant crisis, which European countries faced that time.

This year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1st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which has partly taken place in the Seoul Museum of History, the EUNIC Film Festival with the title "Preserving Heritage for Our Future Generations" focuses its theme on the issues of urbanism, environment, sustainability and gentrification. The festival presents 7 documentary films and 1 feature film from the Czech Republic, Denmark, France, Germany, Great Britain, Hungary, Italy and Spain. The space, where we have been living, we inherited from our ancestors and later on we will pass it on to our descendants.

It means that we are responsible for what we will leave behind and that what, we have been doing in present,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 future. The EUNIC Film Festival aims to raise the questions, how we want to live in the future and how anybody of us can influence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society and the space,

where we live.

On behalf of EUNIC Korea I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the Seoul Museum of History for hosting and co-organizing this event and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kind support. I wish the 3rd EUNIC Film Festival raises an interest of the Korean audience opening a joint discussion and thus it will contribute to the intercultural dialogue and understanding.

—
Michaela Lee
President of EUNIC Korea
Director of the Czech Centre Seoul

유럽연합대표부

우리 모두가 바라고 노력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곳 서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로 7017, 청계천, 차없는 날, 늘어나는 전기차는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이며 유럽연합이 지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주제로 서울 역사박물관과 공동주최하여 제3회 EUNIC 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도시를 주제로 하는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도 맞물려 시의적절한 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전세계 도시화 정도는 54%였고 아시아는 49%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10대 대도시에는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아시아의 도시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인구의 82.7%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화는 지난 세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점차 더 도시화된 세계로 변화한다는 것은 바로 '변화의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와 같은 21세기 지구가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데 도시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는 우리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만들어 지고 이행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정치적, 생태적 환경을 만들고,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활동에 참여하는 도시 시민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올해 EUNIC 영화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 8개국(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상영할 것입니다. 주요 주제는 인류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사람들이 연대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도시 계획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21세기를 살고 싶은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제가 진행되는 5주 동안, 선택된 작품들의 상영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서울을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좋은 모범을 보이기를 희망합니다. 간디는 "본보기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

European Union

Sustainable cities is what we all need, what we are striving for – especially here in Seoul. Seoullo 7017, Cheonggyecheon, car free days, more electric cars are concrete steps in this direction, which the EU supports. Therefore the EU is very proud to cooperate with the 3rd edition of the EUNIC Film Festival, co-hosted by Seoul Museum of History, on the theme of sustainable cities. It is a timely event, which coincides with the 2017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focussing on the 10 Commons.

In 2017, the degree of urbanisation worldwide was 54% - 49% in Asia. And yet, the 10 biggest cities in the world, including Seoul, are to be found in Asia. Half the pop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ives in greater Seoul. 82.7% of South Koreans live in cities.

Urbanisation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trends of the past and present century. The shift towards an increasingly urbanised

world constitutes a transformative force, with cities taking the lead to address many of the global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includ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climate change.

Cities are places where policies that affect each one of us are made and implemented. Therefore citizens are called upon to participate actively in modelling their political and ecological environment and reinventing urban citizenship by engaging in sustainable activities that benefit the people and the planet.

This year, the EUNIC Film Festival will screen a selection of 8 documentaries made in some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Czech, Denmark, France, Germany, Hungary, Italy,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The Central themes are how people can connect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human activities, how people can participate and influence city planning and, ultimately,

how we want to live in the 21st century.

We hope that this small selection will inspire the audiences that will gather over the 5 weeks that the festival will last. I hope that each one of us will lead by example to make Seoul more livable, because as Gandhi said "Example is not the main thing in influencing others, it is the only thing".

—
Dr Michael Reiterer
Ambassador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Republic of Korea.

미래의 도시 – 실험의 장 아시아

2017. 10. 21. 토요일 13:00



독일 / GERMANY

The City of Tomorrow – Experimental Ground Asia

시놉시스

21세기 문명화에 대한 실존주의적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한 아시아 도시로의 탐험은 일본과 중국으로 관객을 이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중심은 세계 제1의 글로벌 도시인 일본 도쿄이다. 최소 공간에 대한 건축이 바로 이곳 일본에서 생겨났다.

Synopsis

The expedition through Asian cities takes viewers along to Japan and China in search of answers to existential questions about civilis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first episode focuses on Japan. Tokyo is the number one global city. The architecture of the smallest space was invented here.

Talk

Hyungrin Pai, Director of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17

배형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2014

104분

다큐멘터리

전체 관람가

감독 : 클레어 플로케, 요르그 다니엘 히센, 마이클 트라비트슈

Director : Claire Floquet, Jörg Daniel Hissen, Michael Trabitzsch

아시아의 대도시 건축을 보면 대부분 초현대적 감각의 고층건물이 뻗뻗하게 들어서 있고 건물들은 인간과 교통을 고려해 층들이 차곡차곡 쌓인 형태를 띤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도쿄와 북경, 홍콩의 예를 들며 (아시아 건축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고층건물이 자연 풍경에 녹아들고, 박물관과 문화건축물이 만남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계속되는 도시로의 이주로 인해 오늘날 건축가들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는 맞춤형 소규모 아파트 건축기술을 이용해 설계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듯한 건물들은 주어진 자연 풍경에 통합되며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두고자 한다. 전세계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박물관과 문화건축물은 부족한 도시문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백만 배가 넘는 인구가 농촌을 떠나면서 필수적이고 실존적 측면에서 긴급한, 새로운 도시의 개념에 대한 질문이 생겨났다. 21세기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새롭게, 또 혁신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 붐이 흥미로운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The City of Tomorrow – Experimental Ground Asia

The architecture of Asia's major cities mainly unites futuristic skyscraper canyons with stacked levels for people and traffic. The documentary films show, using the examples of Tokyo, Beijing and Hong Kong, that it can also be done differently: high-rises that fit into the landscape, and spectacular museums and cultural buildings that become centres of encounter.

Continuing migration poses new challenges for today's architects: cities with millions of inhabitants are drafted on drawing boards in a tailor-made architecture of small-scale apartments. Organic-seeming buildings want to nestle into the given landscape and tie in with ancient traditions. Spectacular, world-renowned museums and cultural buildings respond to the lack of a naturally developed urban culture and at the same time offer the inhabitants meeting places.

The question of concepts for a new city is of vital importance and compelling – a consequence of the millionfold rural exodus. How do we want to live in the twenty-first century? How can we conceive of life in limited space anew and innovatively? The most exciting solutions are being developed in the current Asian construction boom.

내일

2017. 10. 21. 토요일 16:00



프랑스/France

Demain/Tomorrow

시놉시스

기후변화로 인류 일부가 21세기 말 이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네이처>지 특별 공동기고문을 접한 시릴 디옹과 멜라니 로랑 감독은 영화인 친구들과 함께 길에 나선다. 세계 10개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특히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 알아내려는 것이었다. 이 여행을 통해 그들은 농업, 에너지, 경제, 민주주의, 교육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선구자들을 만난다. 이미 작동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내일의 세계가 어떤 멋진 모습을 하게 될지 꿈꾸기 시작한다.

Synopsis

After a special briefing for the journal Nature announced the possible extinction of a part of mankind before the end of the 21st century, Cyril Dion and Mélanie Laurent, together with a team of four people, carried out an investigation in ten different countries to figure out what may lead to this disaster and above all how to avoid it. During their journey, they met the pioneers who are re-inventing agriculture, energy, economy, democracy and education. Joining those concrete and positive actions which are already working, they began to figure out what could be tomorrow's world.

Talk

이은진 공익문화콘텐츠기획사 플랫폼C 대표, 기후변화콘텐츠랩 소장
Eunjin Lee, CEO of Platform C & Head of Climate Change Contents Lab

감독 : 시릴 디옹, 멜라니 로랑
Director : Cyril Dion, Mélanie Laurent

주연 : 제레미 리프킨, 반다나 시바, 얀 겔, 올리비에 드셔터
Stars : Jeremy Rifkin, Vandana Shiva, Jan Gehl, Olivier De Schutter

2015
120분
다큐멘터리
전체 관람가

파리기후변화협약 COP21에 맞춰 2015년 12월 프랑스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내일>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세계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영화이다. 비판보다 희망으로 가득 찬 이 영화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해결책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프랑스에서만 110만명이 넘는 관객들과 세계인의 호평을 받았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영국, 아이슬란드, 핀란드, 미국, 인도, 레위니옹 섬 등을 다니면서 인류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농업, 재생에너지 모델, 도시계획, 경제, 교육, 내일을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속속 만나게 된다.

지역화폐, 석유나 기계를 쓰지 않는 효율적인 퍼머컬처/도시농법, 소비량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지역들, 수십만 시민이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모델. 이 각각의 단계에서 시스템을 만들 때는 어려움에 봉착하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곳에서 장애를 극복하는 일군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이 모든 주제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즉 농업모델을 바꾸는 것은 에너지모델의 변화를 요구하고, 에너지모델의 변화는 국토개발의 재구성을, 국토의 재구성은 경제모델의 검토를, 경제는 인간 행동양식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끌어들이고 따라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진다. 결국,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새롭게 진화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영화는 이 모든 단계에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들을 들려주는데, 자기가 사는 바로 그곳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장애와 난제를 극복하면서 목표에 도달했다고 여길 때면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그러면 다시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선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들은 흐뭇하지만, 우리도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메시지는 강력하다.

‘보고 나면 기분 좋은’ 이 영화는 세계 영화제에서 수많은 상을 받았고, 2016년 세자르 최우수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올해 말 개봉 예정이지만 이미 작년 12월 특별상영을 시작으로 수천 명에 이르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좋은 후기를 남기기도 하였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열망하는 한국인의 바람을 반영하는 듯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공유하려는 바람을 담아 서울시, 여러 지방도시들, 전국 단위 공동체, 시민단체 등이 이 영화의 순회상영을 기획하고 있다.

Demain/Tomorrow

The film Demain/Tomorrow was released at the time of the COP 21 in Paris, the world's citizens wanted to take concrete actions against the climate change. And this film, full of hope, has managed to touch the hearts of the very wide audience, showing that solutions exist everywhere. In the course of a journey across Europe (Germany, France, Denmark, England, Iceland and Finland), the United States(Detroit, San Francisco, Oakland), India and Réunion, they discover step by step how to develop agriculture, energy models, town planning, economics, education and tomorrow's democracy, while allowing human beings to live happier lives.

The local currencies, very efficient local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s without oil or mechanization, regions producing more renewable energy than they consume, governance models enabling hundreds of thousands of citizens to participate in drafting their country's constitution, at each stage they see the difficulties of setting up these systems, and meet groups of people who overcame the obstacles right in the place where they live.

They will understand that all of these subjects are interdependent: changing the agricultural model implies changing the energy model; changing the energy model makes it necessary to reconsider territorial management; reorganizing our lands requires a review of our economic models; changing the economy implies changing human beings, and therefore education has to be thoroughly

transformed. Finally, they will realize that for all of these changes to happen, our democratic systems need to evolve.

Each of these steps leads them to tell an inspiring story: the story of those men and women who united to build a better world where they live. Each story brings its own set of obstacles and impossibilities. Whenever the crew thinks it is reaching a goal, it will face a new problem that sends it back on the road in search of a solution.

This 'feel good movie' is rewarded with several awards, including Cesar best documentary 2016.

In Korea, thousands of spectators have already applauded it even before the theatrical release scheduled for late 2017, which explains the aspiration of the Korean public for the transition to a more sustainable society. City of Seoul, other local governments and several nationwide communities are planning the projection of this film, hoping to find the inspirations and solutions for a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2017. 11. 4. 토요일 13:00



스페인 / SPAIN

EN CONSTRUCCIÓN / WORK IN PROGRESS

시놉시스

바르셀로나의 '엘 치노' 지역은 오래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낡은 건물들과 함께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곳은 광장 공사로 인해 곧 철거될 예정이다. 감독은 2년이 넘게 이어진 공사 과정을 카메라로 기록하며 곧 사라질 풍경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경계를 미묘하게 넘나드는 독특한 화법의 영화.

Synopsis

Over three years, J.L. Guerin recorded with obsessive rigor the demolition of an entire section of the Barrio Chino, a crumbling working-class neighborhood in Barcelona, and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residential complex for the new Catalan middle-class. But as the construction of the city of the future proceeds, the past reasserts itself over and over again: as much in the eerie discovery of an ancient Roman cemetery below the foundations of the new building as in the rich cultural lore revealed in a casual conversation between two old neighbors.

Talk

코코 크가트, 고려대학교 교수
Coco Gugat,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2001
125분
다큐멘터리
15세이상 관람가

감독 : 호세 루이스 게린
Director : José Luis Guerin

주연 : 후아나 로드리게즈 몰리나, 이반 구즈만 히메네스, 후안 로페즈 로페즈
Stars : Juana Rodríguez Molina, Iván Guzmán Jiménez, Juan López López

1960년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호세 루이스 게린은 유럽을 대표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논픽션 감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페인의 폼페우파브라 대학 교수인 그는 교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어 젊은 학생들과 감독들이 실험적 작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구심점으로 만드는 한편 스페인 영화계에 활기와 실험 정신을 불어넣고 있다.

게린의 작품들은 의도적으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경계를 넘나들고 자신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풍부한 스토리텔링과 정해진 답이 없는 미스테리를 이야기로 풀어 내어 관객들에게 깊은 만족을 충족시켜 준다. 게린의 명작 중 매우 급진적인 영화 <그림의 열차>와 최근에 큰 관심과 성공을 거둔 <실비아의 도시에서>는 명상적이고 지적이며, 크리스 마커와 라울 루이스 같은 우아하고 실험적인 면을 연상시키는 내러티브와 공간 및 사운드 기술을 보여준다. 어릴때부터 영화광이었던 그는 외국 영화를 접하기 어려운 스페인 프랑코 독재시절에, 바르셀로나의 영상자료원에서 하워드 혹스와 뤼미에르 형제뿐 아니라, 브레송, 루이스, 필립 가렐과 같은 영화 거장들을 유심히 공부하였고, 훗날 이들이 본인의 영화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바 있다. 게린의 작품은 영화의 고전적 비유들이 현실 세계에 묻어나 있는데, 예로 <공사 중>은 여행자의 시선으로 한 동네를 보려는 하워드 혹스의 연출 방식을 재창조하고자 시도하고, <실비아의

도시에서>는 뤼미에르의 롱테이크 촬영 기법을 개선하고자 시도한다.

여행과 모션 등 영화적 퀄리티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게린의 영화는 낯선 장소를 발견하는 여행으로 관객을 인도하는데, 존 포드의 <이니스프리>를 연상시키는 그의 동명 영화에서도 이런 점을 볼 수 있다. 역동적이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게린의 영화는 영화의 시각적, 감각적 미를 반영하고 기억과 욕망이 도발적으로 뒤섞이는 대담하고 실험적인 영화세계를 보여준다.

EN CONSTRUCCIÓN / WORK IN PROGRESS

As one of Europe's most influential and innovative non-fiction filmmakers, José Luis Guerín (1960~) occupies a unique place in the vibrant and still largely underappreciated history of Catalan cinema. A brilliantly original director and a professor at Barcelona's prestigious Universitat Pompeu Fabra, Guerín has brought a new dynamism and experimental spirit into Catalan and Spanish cinema. Together with his colleague, the radical documentarian Joaquim Jordà, Guerín has transformed the Documentary Program at Pomeu Fabra into one of Europe's most important centers for experimental non-fiction work and inspired a new generation of young filmmakers.

Guerín's films purposefully confound narrative and documentary traditions, discovering rich narrative threads woven into the tapestries of his real life subjects and unraveling mysteries without solutions that nevertheless leave the viewer deeply satisfied. Guerín's masterworks such as the radical *Tren de sombras* and his most recent triumph *En la ciudad de Sylvia* possess a meditative and deeply cerebral quality without being overly intellectual, manipulating narrative, sound and off-screen space with a sophisticated sense of playful experimentation reminiscent of both Chris Marker and Raul Ruiz. An omnivorous cinephile since his childhood during Franco's regime, when foreign films were extremely difficult to see, Guerín openly acknowledges the profound debt owed by his films to those masters who he so carefully studied during his "education"

at Barcelona's Filmoteca – not only directors such as John Ford, Howard Hawks and the Lumière Brothers, who are quoted and referenced throughout Guerín's films, but also those who Guerín boldly sought out and befriended such as Bresson, Ruiz and Philippe Garrel. Guerín's films capture tropes of cinematic classicism embedded in the real world, discovering and reinventing, for example, the Hawksian symmetry between friends on the streets of Barcelona in *En construcció* or refining the patient Lumière long take used throughout *En la ciudad de Sylvia*.

Obsessed with the essentially cinematic qualities of travel and motion, Guerín's films lead the viewer on a voyage of discovery to a "foreign" place, such as his evocative search for John Ford's Innisfree in his eponymous film. Together Guerín's peripatetic and wonderfully curious films create a singular mode of cinema that revels in visual and sensual beauty even as it boldly experiments with narrative structures and provocatively intermingles documentary and fiction, memory and desire.

프라하 도시계획

2017. 11. 4. 토요일 16:00



체코/CZECH

The Plan

시놉시스

다큐멘터리 영화 “프라하 도시 계획”은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도시 계획의 격동적 변화를 다루고 있다. 감독인 벤야민 투첵(Benjamin Tuček)은 2010년 선거 이후 폐지된 본래의 프라하 도시 계획에 생긴 변화와 새로운 계획의 형성 과정에 집중한다. 영화에서 “계획”이라는 단어는 사회개발과 21세기의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은유가 된다. 이 영화는 시민참여의 동기, 지방자치 정책의 구조 그리고 공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자본의 힘에 대해 드러낸다. 사회 전반의 회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인간의 발상의 진실성,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미래의 증축을 가능하게 할 비전의 존재를 찾고 있다.

Synopsis

The documentary film “The Plan” engages in the turbulent changes of the Czech Capital Prague and its city plan during the period 2009 – 2014. The director Benjamin Tuček focuses on the changes of the original Prague city plan abolished after the election in 2010 and the creation process of the new one. In the film the word “plan” becomes a metaphor for the social development and the direction, which the society is going in the 21st century. The film reveals motivation for civic engagement, the municipal policy’s mechanism and the influence of the capital on the decision process concerning public matters. Despite the scepticism in the society the director is looking for sincerity of human ideas, belief in democracy and existence of a vision, which would be possible to build on in the future.

Talk

미하엘라 리 주한체코문화원장
Michaela Lee, Director of the Czech Centre Seoul

2014
90분
다큐멘터리
전체 관람가

감독 : 벤야민 투첵
Director : Benjamin Tuček

제 3회 유닉 영화제(EUNIC Film Festival)의 주요 화제인 어바니즘,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맞춰 주한체코문화원은 체코 감독 벤야민 투첵의 2014년 작품 영화 “프라하 도시 계획”을 상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벤야민 투첵은 프라하 국립공연예술대학교 영화방송학부에서 시나리오와 극작법을 공부하였다. 그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다큐멘터리, 장편영화, TV시리즈와 프로그램을 감독한다. 그는 데뷔 작품인 장편영화 “Girlie (2000년)”로 큰 성공을 거두며 가장 권위 있는 체코 영화 상인 체코사자상에서 여배우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그는 “The Idiot Returns”, “Champions”, “Protector”, “Polski Film”과 같은 체코 및 해외에서 수상한 다수의 성공적인 체코 영화 제작에 참여하였다.

자신의 사적인 경험에 영감을 받아 투첵 감독은 프라하의 도시 계획을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가 살고 있는 거리에,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공장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한 민영 개발 회사에 팔리게 되었다. 이 회사는 그 건물을 부수고 그 자리에 평범한 사무실용 빌딩을 지었다. 그 순간에 벤야민 투첵은 지역 정부가 의미 있는 공적 용도나 여론에 대한 고려 없이 공적 공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공적인 토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 알게 되었다.

5년 동안, 그는 지역 정치인, 개발자, 공무원, 건축가, 시민 운동가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된 사례들에 대해 관찰하였다. 프라하 시민들의 공익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영향을 받은, 2009년부터 2014년 동안 진행된 프라하 도시 계획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그는 정계와 개발 및 건설 업체간의 연결, 그리고 도시 개발을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 정작 도시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도시의 개념이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감독은 구체적인 프라하의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그는 전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다급하면서도 공통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일반적인 토론의 장을 열고 있다. 누가, 그리고 왜 짓고 있는 것인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공공장소의 가치는 무엇인가? 미래 도시 개발자들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는 도시가 어떤 곳이 되기를 바라는가?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도시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장소를 건설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The Plan

In accordance with the main topics of the 3rd EUNIC Film Festival as urbanism,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the Czech Centre Seoul has decided to screen the film “The Plan” made by a Czech director Benjamin Tuček in 2014. Benjamin Tuček studied scriptwriting and dramaturgy at the Film and TV School of Academy of Performing Arts in Prague. He writes scenarios and directs documentary and feature films, TV series and programs. He gained success with his debut feature film Girlie (2002), which was awarded by the most prestigious Czech film award Czech Lion for the Best Actress. Moreover he was involved in making many successful Czech films as The Idiot Returns, Champions, Protector or Polski Film awarded in the Czech Republic and abroad.

Director Tuček inspired by his private experience decided to make a documentary film dealing with the theme of Prague City planning. In the street, where he lives, there was a very old factory building from the 1st half of the 20th century, which was sold to a private development company. The company demolished it and built on its place an ordinary office building. In this moment Benjamin Tuček realized, that concerning the public space the local authorities make decisions without consideration of meaningful public use and public opinion. Actually, that there is no public discussion about the space, where the citizens live.

For 5 years the director observed local politicians, developers, public officers, architects, civic activists and the most discussed cases. Through monitoring the changes of the Prague City Plan from 2009 to 2014 influenced by the market in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he points out to the connection among politics, developers and building industry and that the people, who decide or have influence on the city development, may don't care about the city or the people living there, but only about the profit. He reveals that the city concept has disappeared. Although the director deals with the concrete situation in Prague, he opens space for a general discussion asking many questions urgent for any other people all over the world. Who and why is building? Who is the decision maker? Who has the responsibility? What is the value of the public space? What is the vision of the city development in the future? What do we want the city to become? How can an ordinary citizen influence the city development? What is the way, how to build a better place for people living there?

스톡홀름 씨의 좋은날

2017. 11. 11. 토요일 13:00

덴마크 / DENMARK



Good Things Await

시놉시스

닐스 스톡홀름은 덴마크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농부 중 하나다. 그의 삶에 대한 철학은 덴마크 노던 시랜드에 위치한 생물 역학적인 투어수회고 (Thorshøjgård) 농장에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자연을 존중하며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와 아내 리타가 생명역동농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농장의 산물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최상급으로 정평이 났으며, 덴마크에서 손에 꼽히는 레스토랑들에 납품할 식재료를 생산하며, 특이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들로 덴마크를 세계 미식가들의 성지로 만들고 있다. 닐스의 헌신적인 노력은 그의 농사 철학을 낫설어 하던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농업 관계 당국은 법적 규율 및 기준과는 다른 그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Synopsis

Niels Stokholm is one of the most idealistic farmers in the agriculture country Denmark. His entire view of life/life philosophy is about creating sustainability and about living in harmony with respect for the nature at the biodynamic farm, Thorshøjgård in Northern Sealand, Denmark.

Niels and his wife Rita produce ingredients to several of the best restaurants in Denmark - here the leading chefs from Denmark pick up the unique ingredients that help visibly place Denmark on the world map of gastronomy/ gastronomic world map. But their idealism and way of farming is a thorn in the side of the public authorities.

Talk

맹수진 프로그래머
Soo-Jin Mang, Programmer

2014
95분
다큐멘터리
12세이상 관람가

감독 : 피에 암보
Director : Phie Ambo
주연 : 닐스 스톡홀름
Stars : Niels Stokholm

영화제공 : EBS

닐스는 코펜하겐 북부에서 낙농업을 하는 농부이다. 인간과 지구,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범우주론적인 철학의 소유자인 그는 40년간 고집스럽게 자신의 철학을 담은 농장을 운영해 왔다. 이곳에서 그는 ‘생명역동농법’을 실험한다. 건강한 태양빛을 받은 풀이 건강하게 자라고, 건강한 풀을 먹은 소가 건강하게 자라며, 건강한 소를 먹은 인간이 건강할 수 있다는 신념 하에 운영해온 그의 농장은 일체의 화학비료, 농약을 배제한 건강한 생산물을 만들어 왔다. 이 농장의 생산량이 경제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대규모 현대 농축산업의 생산량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으며 품질 역시 최고라는 점은 이 팔순 노인의 고집스런 철학이 충분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 년 간 닐스의 농장에 머무르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관찰해 온 감독은 닐스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다. 카메라의 시선이 닿는 농장 곳곳에는 경건함이 깃들여 있고, 하찮은 미물에서도 신비로운 우주의 힘을 느낄 수 있다. 광활한 우주에서부터 미생물이 꿈틀거리는 농장의 땅 속까지 실로 광대한 거리를 넘나드는 카메라의 자유롭고 시적인 움직임은 요한 요한손의 합창곡과 결합되어 농장의 일상에 종교적 아우라를 부여한다. 관객은 인간과 우주의 조화를 창조하는 최초의 농부가 되고자 하는 그의 소망이 돈키호테의 외로운 망상이 되지 않기를 응원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농장에서 발생하는 기적의 목격자가 된다.

Good Things Await

Niels, a dairy farmer in Northern Copenhagen, has run his own farm for over 40 years with the belief that humans, Earth and the universe are all connected to one another. He has practiced biodynamic farming, which produces healthy products without using any chemical fertilizers or synthetic pesticides. His farm has been managed with the belief that humans are healthy when they eat healthy cows, which have grown by eating healthy grass naturally grown in full sun. In terms of an economic output, the production of Niels' dairy farm equals that of modernized large-scale counterparts. And its quality is second to none. The result proves that it is worth listening to this persistent octogenarian farmer and his underlying philosophy on organic dairy farming.

As one of Niels' strongest supporters, the director has stayed in his farm and documents all the miracles. The camera captures the sanctity permeated in every corner of the farm where we can see the mysterious power of the universe even in the most seemingly insignificant creatures. From long shots of the vast universe to extreme close-ups of the underground earth with microbe wriggling, the camera moves freely and poetically even-in harmony with the Jóhann Jóhannsson chorus. And it all invests the daily lives of the farm with a religious aura. The audiences cheer for Niels who wants to become the first farmer creating the balance between the human beings and the universe. And they want his hope not to degenerate into lonely delusions of Don Quixote. Finally, we are able to witness the miracle in Niels' farm.

갓 세이프 더 그린

더 플라잉 가드너스

2017. 11. 11. 토요일 16:00



이탈리아 / ITALY

God Save the Green

The Flying Gardeners

시놉시스

최근 몇 년 사이, 개인 정원과 주말농장, 발코니와 테라스 그리고 도시의 방치된 공간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공동체들이 나라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이들이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하고 싶다는 바람과 더불어 자신의 삶의 방식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경작을 한다.

God save the green 영화는 땅을 경작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인생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Synopsis

In the last few years, everywhere in the world, individuals and small groups of people have started to cultivate vegetables in their own gardens, in their allotments, in their balconies, in their terraces and in neglected places of their cities. They do that, because they want fresh and healthy food, they want to change their way of life, the place where they live and the urban environment.

God save the green tells the stories of this people who are regaining a sense of community through gardening and at the same time are changing their lives and the places they live in.

시놉시스

그들은 네 달에 한 번 씩 Vertical Forest의 주변을 납니다. 지붕 끝에 매달은 밧줄에 몸을 묶어 건물의 발코니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건물 아래로 날아다닙니다. Forest가 밀라노 하늘에 풀어놓는 생명의 다양성은 식물학자이자 등반가인 그들만이 인식한다.

Synopsis

Every four months they fly around the Vertical Forest. They hang by rope from the edge of the roof and descend by jumping between balconies. Botanists and climbers, only they have the consciousness of the richness of the lives that the Forest hosts in the Milan sky.

Talk

김성욱, 시네마테크 서울 프로그램 디렉터
Seong Uk Kim, Program Director of Seoul Art Cinema

2012

75분

다큐멘터리

전체 관람가

감독 : 미켈레 멜라라, 알레산드로 로시

Director : Michele Mellara, Alessandro Rossi

2015

9분

다큐멘터리

전체 관람가

감독 : 지아코모 보에리, 마테오 크리말디

Director : Giacomo Boeri, Matteo Crimaldi

이 두 편의 작품은 빌딩 숲 도시의 특별한 정원사들을 다룬다. Giacomo Boeri, Matteo Grimaldi의 단편 THE FLYING GARDENERS는 로프에 매달려 빌딩 테라스의 정원을 손질하는 세 명이 정원사를 보여준다. 이른 새벽, 등산복장을 한 세 명의 사람이 어느 빌딩 앞에 집결한다. 마치 암벽등반이라도 이제 막 시작할 것 같은 복장이지만 이들이 오르는 곳은 산이 아니라 빌딩의 옥상이다. 그들은 고층 빌딩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로프를 타고 하강하며 테라스의 정원을 손질한다. 카메라는 빌딩의 외벽에서 가끔은 실내 공간에서 정원사들의 하강의 움직임을 다가가 보여준다. 그렇게 이 영화는 수직의 빌딩과 수평의 정원, 자연을 대비시킨다. 아무런 대사도 없고 단지 빌딩과 정원사 세 명이 나오는 단편이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God Save The Green은 더 확장된 세계 도시의 정원사들을 소개한다.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브라질, 케냐의 나이로비, 독일의 베를린, 이탈리아 볼로냐 등 글로벌한 규모에서 도시에 정원을 가꾸려는 개인, 집단의 움직임을 모자이크처럼 구성된 이야기로 담아낸다. 그들은 도심 속 정원에서, 발코니에서, 그리고 버려진 땅에서 나무를 가꾸고 농작물을 재배한다. 도시의 더 나은 미래를, 새로운 삶을, 건강한 음식을 원하기 때문이다. 영화의 첫 장면은 자연과 콘크리트 빌딩숲을 대조시키며 이 영화가 제기하는 질문을 압축해 보여준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콘크리트 빌딩을 필요로 하는가?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비옥한 대지를 파괴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산업지구를 만들어야만 하는가? 이 작품은 도시인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빌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살아야 할 장소가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이탈리아와 전 세계에서 녹색지대 만들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때로는 버려지고 더러워진 땅에 몰래 들어가 정원을 가꾸는 게릴라 가드닝처럼 도시적 삶에 저항하는 몸짓이기도 하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런 개인들, 집단들의 경험을 전시하면서 이들이 사회에, 공동체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지를 말해준다. 이는 소수적인 몸짓이 아니라 최근 글로벌한 규모로 벌어지는 거대한 하나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발코니에 그들만의 정원을 경작하고, 도시 속에 자연을 조정하고, 공공공간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려는 노력들은 자연에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이 다큐멘터리는 처음과 마지막은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God Save the Green/The Flying Gardeners

These two films deal with the special gardeners of the building forest city. The short film of Giacomo Boeri and Matteo Grimaldi entitled THE FLYING GARDENERS shows the work of three gardeners that hanged by a rope trims the garden of a skyscraper's terrace.

Early dawn. They are in front of the building in climbing costumes. They are dressed up like rock climbers, but the place where they have to climb is not a mountain but a roof of a building. They trim the garden, hanging by the rope from the edge of the roof and jumping between balconies of the building. The camera captures the movements of the gardeners by alternating the point of view from the inside to the outside of the building. This creates a contrasts of a vertical building and a horizontal gardens which is the nature. There are only the building and the three gardeners in this short film with no dialogues, but it make us to think of many things.

God Save the Green introduces the gardeners of a more extended world city. It is a mosaic of tales of individuals and groups trying to cultivate a garden on a global scale, in place likes Casablanca in Morocco, Nairobi in Kenya, Berlin in Germany, and Bologna in Italy. They cultivate vegetables in city gardens, in their balconies and in neglected places of the cities. They do that, because they want fresh and healthy food, and they want to have a new life and a better future for their cities. The first scene of the film succeed in posing all

the meaningful questions of the film by contrasting the forest of concrete building with the nature. How many concrete buildings do people need? How many fertile grounds should we destroy in return? And how many industrial districts should we make? This film says that urban residents do not need a new building for living, but that we should think and ask ourselves about in what kind of places we should live. The efforts of people to create green areas in Italy and around the world are also a gesture against urban life, a guerrilla gardening, with people sneaking into the abandon and polluted land to cultivate the garden. This documentary shows the experiences of individuals and groups that are giving a new meaning to the society and their communities. This is not a small scale movement, but a recently growing phenomenon on a global scale. All the effort of cultivating their own gardens on balconies, changing the landscape of the city's nature, revitalizing public spaces, and producing healthy agricultural products are all efforts to get closer to nature. And the beginning and ending of this documentary show the beauty of this nature.

무빙 이미지

2017. 11. 18. 토요일 13:00



영국/UK

A Moving Image

시놉시스

〈무빙이미지 (A Moving Image)〉는 런던 브릭스톤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담은 멀티미디어 장편 영화로 픽션, 다큐멘터리, 행위 예술을 녹여내고 있다.

니나는 오랜 공백 후 그녀의 지역 사회로 되돌아온 젊지만 현실에 억눌린 화가로 곧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이 된다. 니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혼란을 겪지만 지역사회를 하나로 만들어줄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일에 몰두한다. 우리는 니나의 여정을 통해 브릭스톤 젠트리피케이션에 실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마주하며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든다.

Synopsis

A Moving Image is a multimedia feature film about gentrification in Brixton, London, incorporating fiction, documentary and performance art.

We follow Nina, a young stifled artist who returns to her community after a long absence - she is soon painted as a symbol of gentrification. As she struggles with her own complicity, we follow her mission to create a piece of art that can bring her community together. On her journey we speak to real people affected by gentrification in Brixton blurring the lines between reality and fiction.

Talk

김형우 대표, (주)PEOPLE 대표
Benny Kim, CEO of PEOPLE

2016

74분

블랙, 다큐멘터리, 드라마
15세이상 관람가

감독 : 솔라 아무

Director : Shola Amoo

주연 : 타냐 피어, 후시나라 라자, 아키 오모샤이비, 알렉스 오스틴

Stars : Tanya Fear, Hussina Raja, Aki Omoshaybi, Alex Austin

젊은 영화감독 솔라 아무의 새 작품 <무빙이미지 (A Moving Image)>는 2016년 영국 브릭스톤에 대한 다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솔라 아무 감독은 런던서부 토박이로 항상 그의 고향인 보로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 내 진정성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그만의 신선한 시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솔라 아무 감독과 제작자인 라이엔제 아토는 2013년 10월 영화를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자란 런던 서부에 불어닥친 변화, 수많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명과 암을 영화에 담고자 하였다. 런던 브릭스톤은 1948년 영국으로 대거 이주한 아프리카계와 캐리비안계 영국인의 고향과도 같다.

영화는 타나 피어가 연기한 현실에 억눌린 아티스트 니나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인공 니나는 오랜만에 되돌아 온 고향 브릭스톤에서 곧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으로 몰리고 말지만 희망을 가지고 브릭스톤을 하나로 만들어줄 예술작품의 창작에 힘쓴다. 영화 속 니나의 이야기는 감독인 솔라 아무를 닮아 있다. 그리고 오늘날 서울에 살고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중첩된다.

<무빙이미지 (A Moving Image)>는 세계 최초로 2016년 LA 영화제 (LA Film Festival)에서 개봉하였으며, 필라델피아의

블랙스타영화제 (Blackstar Film Festival)에서 특별상 (Special Recognition)을 수상하였다. 2016년 10월 BFI 런던 영화제 디베이트 (Debate)부문에 공식 선정(Official Selection)되었다.

A Moving Image

Young filmmaker Shola Amoo's new work, A Moving Image, asks questions many find too uncomfortable to ask about what is happening to Brixton in 2016. Shola Amoo is South London through and through. He has always cared about stories from his home borough, wanting to tell stories that give a fresh perspective on the area, stories that reflect the real vitality of the local community.

Shola Amoo and Rienkje Attah, Producer started developing A Moving Image in October 2013 to reflect the changes taking place in South London, where they both grew up. They wanted to document the changes to their area, Brixton, a place that has been home to African and Caribbean communities starting with the Windrush generation of 1948, and reflect the numerous arguments for and against gentrification.

A Moving Image tackles gentrification head-on, following the story of stifled artist Nina. Played by Tanya Fear, Nina returns to home after a long time away, before long she is seen as complicit in the gentrification of the area, hoping to produce a work of art that will bring the community in Brixton together - a story that mirrors Amoo's own life. It may also mirror some of us' life in Seoul.

It had its World Premiere at the LA Film Festival 2016 in competition for the World Fiction prize and received a Special Recognition Award at the Blackstar Film Festival

in Philadelphia. In October 2016, A Moving Image had its European premiere at the London Film Festival.

유리 채색 화가 – 므셔 로트의 예술

2017. 11. 18. 토요일 16:00

헝가리/HUNGARY



The Glass Painter – The Art of Miksa Róth

시놉시스

므셔 로트(1865-1944)는 유명한 헝가리 아르누보 예술가이다. 그의 뛰어난 유리창과 모자이크 작품은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작가는 수준 높고 잘 구성된 예술품과 조화로운 아틀리에 작업을 선호하였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는 수백 개의 종교 유리 작품을 만들었지만 유대인이었기에 그는 세계 제 2차 대전 당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브루주아적이라 하여 많은 그의 작품들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거부당했다. 영화는 온전히 그의 작품과 사진, 서류, 코멘터리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훌륭한 예술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20세기 헝가리 역사에 대해서도 보여준다.

Synopsis

Miksa RÓTH (1865-1944) was a famous Hungarian master of Art Nouveau. His excellent glass windows and mosaics greatly contribute to the beauty of Budapest. High quality, well composed and constructed artifacts, cooperative atelier work. Being Christian he made hundreds of religious glass paintings, but being Jewish he lost everything he had during the WWII. Being a representative of the bourgeoisie many of his works were rejected under the communist regime. The film builds up his life purely by his works, some photos and documents, using commentary. It gives a view not only about a great artist but also the Hungarian history in the 20th century.

Talk

Beatrix Mecs, Professor of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at ELTE University
비아트릭스 멕시 ELTE 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2015
70분
다큐멘터리
전체 관람가

감독 : 토트 피테르 팔
Director : TÓTH Péter Pál

“유리창은 건물에 자연의 힘과 빛을 가져다준다. 유리 채색 예술가는 안팎의 공간을 연결하여 무형의 빛에 형태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유리 채색 화가’는 헝가리 최고의 앤틱 유리 채색 화가이자 모자이크 예술가인 믹서 로트 (1865-1944)에 대한 영화이다. 그는 중세 고전 스테인드 글라스 채색을 주로 하였지만 헝가리 및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아르누보 선구자 중 하나이다.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움에 대한 광고가 있다면 거기에는 이 위대한 예술가의 유리창이나 모자이크가 반드시 포함되어있을 것이다. 국회의사당, 성슈테판 대성당, 헝가리 국립은행 및 그레셴 궁전의 유리창과 리스트 음악원, 세체니 온천, 세르비타 광장의 前토르코 은행의 모자이크는 그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그의 작품들은 또한 오스트리아 (마리아스도르프의 필그림 교회), 네덜란드 (왕궁), 노르웨이 (오슬로의 파게르보리아 교회, 산데피오르드의 교회), 심지어 멕시코 시티 (국립 극장)에서도 볼 수 있다.

사유 건물 및 궁전에 표현된 믹서 로트의 절충적인 디자인은 많은 다양함을 보여준다. 밝게 채색된 유리창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고 닫힌 내부 공간을 정원 및 도시 환경과 이어준다. 헝가리 아르누보와 민속 예술 장식 모티브는 특별한 독창성을 만들어낸다. 믹서 로트는 중세시대 장인이라는 그의 이상처럼 수준 높고 잘 구성된 예술품 및 조화로운 아틀리에 작업을

선호하는 예술가들을 대표한다. 그는 무라노 모자이크, 티파니 유리, 금색 나뭇잎, 졸너이의 에오신 자기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어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당시 그는 ‘왕실 유리 채색 화가’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루이스 캄포트 티파니에 의해 고안되어 그의 이름을 딴 유리 공예를 적용한 최초의 예술가였다. 오팔색의 유리는 그 표면이 매끈한 지, 울퉁불퉁한 지, 거친 지, 구불구불한 지에 따라 다양한 빛을 발한다.

믹서 로트는 1865년 부다페스트에서 출생했다. 그의 선조는 헝가리 동북부의 유대인 유리 장인이었다. 1897년 요제피나 엠마 왈라와 결혼하면서 카톨릭으로 개종하였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는 수 백 점의 종로 유리화를 제작하였다. 하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세계 제2차 대전 동안 모든 것을 잃어야 했다. 그는 강제수용소로 이송되기 전 사망했다. 부르주아를 대표한다고 하여 그의 많은 작품들이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거부당했다.

영화는 온전히 그의 작품과 사진, 서류, 코멘터리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훌륭한 예술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20세기 헝가리 역사에 대해서도 보여준다. “유리 채색화처럼 우리의 영혼을 깊이 사로잡은 장식 예술은 없다. 왜냐하면 유리 채색화를 통해 쏟아지는 빛은 채색된 태양빛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불 속에서 정제된 색채는 태양빛이 된다.”

The Glass Painter – The Art of Miksa Róth

“The glass window brings the power of nature and light into the building. The glass painter artist is the shaper of immaterial light, connecting the inside and outside spaces.”

The Glass Painter is a biographic film about Miksa Róth (1865-1944) the best antique glass painter and mosaic artist in Hungary. Although he specialized in medieval and classic stained glass paintings, he was one of the most well known pioneers of Art Nouveau, not only in Hungary but all over the world. If there is any publicity about the beauty of Budapest there must be a glass window or mosaic from this excellent artist: the glass windows of the Parliament, the Saint Stephen's Basilica, the National Bank of Hungary, the Gresham Palace, or the mosaics of the Liszt Music Academy, the Széchenyi Bath, or the former Török Bank on Szervita Square. His works can be also seen in Austria (pilgrim church of Mariasdorf), the Netherlands (Royal Palace), Norway (Fagerborg church in Oslo, church of Sandefjord) or even in Mexico City (Teatro Nacional).

The mostly eclectic designs of Miksa Róth made for private buildings and palaces show a great variety. The bright coloured glass windows connect the outside with the inside, the closed home space with the garden and the city environment. The motifs of the ornamentation of Hungarian art-nouveau and folk art form a special unity. Miksa Róth represented that kind of artists who prefer the high quality, the well composed and constructed artifacts and

the cooperative atelier work – just like his ideals, the masters of the Middle Ages. He elaborated a unique technique using different materials: Murano mosaic, Tiffany glass, golden foliage, and the eosin ceramics of Zsolnay. In the Austro-Hungarian Monarchy he was honoured with the title of “royal glass painter”, and he was the first one to apply the glass type discovered by and named after Louis Comfort Tiffany. The opalescent glasses transmit light variously according to their plain, pebbled, grainy, or wavy surfaces.

Miksa Róth was born in 1865 in Budapest. His ancestors were Jewish glassmakers in North-East Hungary. At his marriage with Jozefina Emma Walla in 1897, Miksa Róth converted to Catholicism. Being Christian he made hundreds of religious glass paintings, but being Jewish he lost everything he had during the WWII – and died before he would have been transported to a concentration camp. Being a representative of the bourgeoisie many of his works were rejected under the communist regime.

The film builds up his life purely by his works, some photos, some documents, using commentary. It gives a view not only about a great artist but also the Hungarian history in the 20th century. “There is no such decorative art that captures our souls as deeply as glass painting, because the light pouring through the glass paintings is coloured sunshine itself; the colour refined in fire becomes sunshine.”

관람안내/OPENING HOURS

구분	평일	토·일·공휴일	휴관
Section	Weekdays	Weekend & Holidays	Closing time
3 - 10월	09:00 - 20:00	09:00 - 19: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March - October			On every Mon & On 1st of Jan
11월 - 2월	09:00 - 20:00	09:00 - 18:00	
November - February			

관람안내/TRANSPORTATION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서대문역 4번 출구		
Subway	Line 5 Gwanghwamun Station Exit 1, Line 5 Seodaemun Station Exit 4		
버스	파랑 Blue	101, 160, 260, 270, 271, 273, 370, 470, 471, 600, 601, 602, 702, 703, 704, 710, 720, 721	
Bus	초록 Green	7019	
	빨강 Red	2500, 9701, 9709, 9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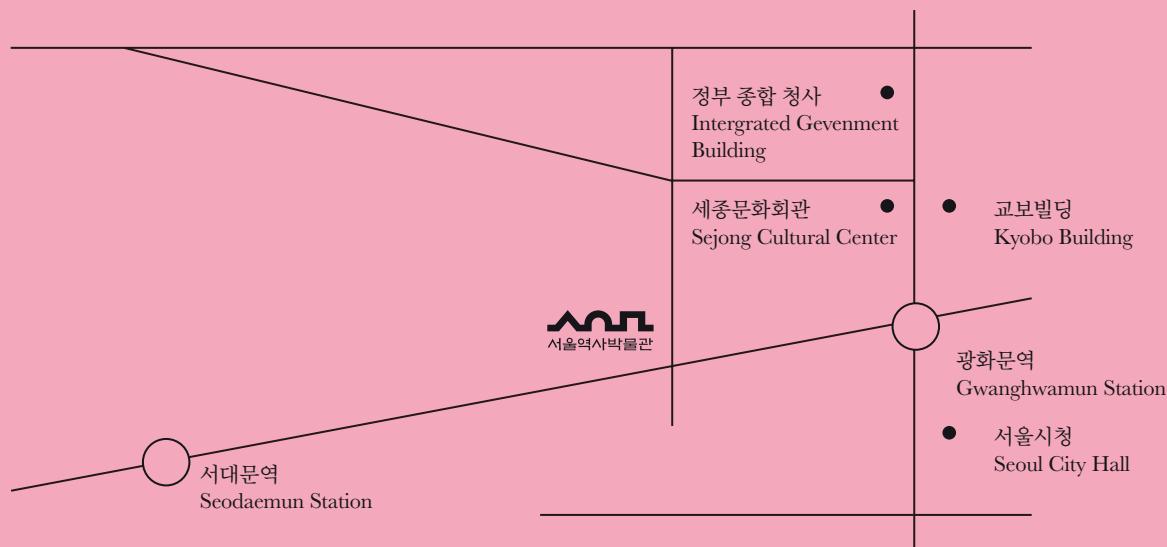
참여방법

전석 무료 FREE ENTRY	사전예약: 서울역사박물관 www.museum.seoul.kr / yeyak.seoul.go.kr	잔여석 현장 접수
------------------	---	-----------

주차료/PARKING FEES

구분	20인승 미만	20인승 이상	운영시간
Section	Under 20 Passengers	20 and above	Operating Hour
5분당	400원	800원	08:00 - 22:00
Per every 5 min	KRW 400	KRW 800	
최초 2시간	3,000원	6,000원	
Up to two hours	KRW 3,000	KRW 6,000	

약도/MAP



발행인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

기획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발행일
2017년 10월

공동주최
서울역사박물관
유럽연합국가문화원(EUNIC Korea)

후원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자료제공
주한독일문화원
주한프랑스문화원
주한스페인대사관
주한체코문화원
주한스웨덴대사관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주한영국문화원
주한헝가리대사관

